

담양 어울림장터, 지역 상생 거점 '자리매김'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어울림장터'가 주민과 관광객을 잇는 지역 상생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어울림장터는 지역 주민과 공동체, 소상공인, 창작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형 판매·체험형 장터로, 최근 영산강문화공원 일원에서 4회째 행사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장터에는 회차별 평균 25개팀의 판매자가 참여해 수공예품과 생활용품, 농산물,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회당 평균 매출은 800만원을 기록했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면서 판매와 체험, 소통이 어우러진 지역 축제의 장으로 운영됐다.

장터는 단순히 판매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발전했다.

참여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와 함께 창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담양의 다양

을해 4회 운영...평균 판매자 25개팀·매출 800만원 성과 가족 관광객 발길...관계망 형성·공동체 활동 등 소개도

한 공동체 활동과 지역 자원을 소개하는 장구가 됐다. 여기에 주민과 활동가들도 협력했다. 이들은 판매자 모집부터 공간 구성, 시설 점검,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장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어울림장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첫 대화모임에는 행정과 참여 판매자들이 함께해 지역 내 장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시 운영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여 판매자들은 안정적인 판매 공간과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주민과 판매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6월 참여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운영 주체 구성과 역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순에 센터장은 "어울림장터는 주민과 판매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담양형 판매·체험형 장터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수사 기자 iss270@gwangnam.co.kr



최근 영산강문화공원 일원에서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어울림장터'가 열렸다.

사진제공=담양군청

'지역경제 마중물' 나주시사랑상품권 정책 개편

나주시가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를 조정하고, 할인판매 규모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나주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구매 한도와 판매 운영

하반기 할인판매 430억원 확대...구매·보유 한도 조정

방식을 조정한다. 모바일·카드형 나주시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역형 상품권 구매 한도 역시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판매 시작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시작 시점의 시스템 접속 집중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 등 재정 여건을 반영해 하반기 모바일과 카드형 나주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를 기존 28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구매 한도 조정으로 혜택 대상이 약 2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시사랑상품권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빛가람동 등 원도심 주요 상권에서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사용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나주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시민 혜택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 기반 확대와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곡성, IC 진입부 꽃화분 설치 불법광고 예방·도시경관 개선

곡성군은 불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던 곡성IC 진입부에 꽃화분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곡성IC 진입부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으로, 그동안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었다.

이에 군은 불법광고물 게시가 빈번한 구간에 꽃화분을 설치해 현수막 게시 공간을 줄이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꽃화분 설치 이후 해당 구간의 불법광고물 발생이 감소하면서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설치된 꽃화분과 식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수 작업과 함께 식물 생육 상태, 토양 상태, 화분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강풍·호우 등 기상 악화 이후에는 추가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IC 진입부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인 만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국내 최대 '해상풍력 컨퍼런스' 여수서 열린다

16~17일 엑스포컨벤션센터...공급망 협력·기술 교류 활성화

여수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공급망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기업, 연구기관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 73개사가 참여해 총 102개 부스를 운영하며, 개

막식과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전문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1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해상풍력 산업계 간담회가 열려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와 공급망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애인식 개선' 순천만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17~18일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이해와 공감 확대"

순천시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2026 순천만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제 첫날인 17일에는 영화 '나는 보

리'와 '학교 가는 길'이 상영되며, 18일에는 '지구에 온 웰리스트', '몽고반점',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 등 3편이 상영된다. 관람객들은 이틀간 총 5편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각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감독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의 제작 과정과 영화 속 메시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장애

이론 전시회는 해상풍력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공급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수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 2027년까지 3GW 규모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여수=송원진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함평 자연생태공원 무료 개방 효과 '특독'

전년 동월비 입장객 41.2%↑...체류형 관광 기대

함평군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자연생태공원 야외공간 무료 개방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공간 무료 개방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자연생태공원 입장객은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했다.

양사·파충류생태공원을 포함한 전체 방문객 수 역시 1만1363명에서 1만4725명으로 약 3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생태공원을 열린 공공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4월 23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러한 군의 결정은 △여가·휴식 공간 확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시설의 공익 기능 강화 △관광자원 간 연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무료 개방 이후 가족 단위 방문객과 단체 관광객이 증가했고, 입장료 부담으로 방문을 미뤘던 지역 주민 이용도 확대됐다. 군은 함평엑스포공원 등 인근 관광지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무료 개방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관광 안내 기능 강화와 환경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함평자연생태공원을 서남권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택곤 산림공원과장은 "자연생태공원 무료개방은 단순히 입장료를 면제하는 차이를 넘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열린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시설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이 5월 한 달간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공간 무료 개방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자연생태공원 입장객은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했다. 사진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입구 전경.

사진제공=함평군청